

할머니 지정대사

*할머니는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저 멀리서 할머니가 골목 초입에 수레를 멈추고 박스를 줍고 있다.
수레 안에서 그물망과 비슷한 잡자리채를 발견한 진서
진서 잡자리채를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조용히 접근한다.
그때 할머니가 남아있던 작은 폐지들을 올리려 뒤돌아보다 진서를 본다.

할머니

아 왜 아까부터 구찮게 따라다녀! 도와주려고?

진서는 할머니의 말에 당황한다. 할머니 수레를 다시 들며 진서를 아니꼽게 본다.

할머니

자기 몸도 잘 못 가눌 것 같은데 남 도와준다고 난리여.
도와줄 거면 어서 도와줘. 어여 저기 까지 올라가야 해 (웃는다.)

진서

네..

골목 맨 위에 도착한 할머니와 진서. 진서는 헐떡이며 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할머니는 수레 구석을 뒤지다 얇은 박스 하나를 바닥에 던져 그 위에 앉는다.
이때 진서는 흰자위로 계속 할머니를 쳐다보며 탄성을 피운다.

할머니

뭐허

진서

(계속해서 헐떡이고 있다)

할머니

얹고 싶음 얹을 것이지

진서

아..... 아니...괜찮아요..

할머니

왜 자꾸 쳐다봐?

진서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자 피하며) 엇

할머니

(진서를 놀리며) 엇엇엇. 그만하고 시방 앉거나 혀. 더위 먹어서 곧 쓰러지거써.

할머니는 멀뚱멀뚱 서 있는 진서의 팔길을 잡아당겨 그녀를 옆에 앉힌다.

할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 앉은 진서는 엉덩이를 옆으로 옮긴다.

할머니는 수레에서 얼음 물병을 꺼내어 진서에게 준다.

할머니

힘들었지? 이것 좀 마셔

진서

감사합니다...

진서는 멋쩍게 대답을 하며 잠자리채를 바라본다. 그러다 눈동자를 굴리며 다른 무거운
페이지들을 보다가 힘 없으신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어본다.

진서

할머니.. 혹시 뭐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나요?

할머니

뭐라고!! 안 들려!!! 내가 귀가 안 좋아서 쫘 크게 말혀봐!!!!

진서

할!머!니!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할머니

어우 너무 커~~ 적당히~ 말해

진서

네... 근데 할머니는 나이 드셔서 힘드실텐데
굳이 힘들게 나와서 왜 무거운 수레를 끌고 페이지를 주워요?

할머니

페이지 줍는게 어때서! 나중에 늙어봐 이만한 일거리도 없어~
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불러주는 곳도 없고...

진서

그럼 그냥 방에서 쉬면 되는건데..편하기도 하고

할머니

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아가씨는 매일 나가니까 쉬는게 좋고 그런거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맨날 연속극 보면 지루해.
밖에 나오면 재밌는 일도 많아.

그리고 이렇게 이쁜 처자가 늙은 할미도 도와준다 하고... 재밌지 뭐.